

서평문화

제 50 집



서평위원회

원장 한영우 /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원 김석환 /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
문병준 /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신달자 /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엄정식 / 서강대 대학원장
오생근 /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유안진 /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윤희 / 인천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이정복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정중현 / 조선일보 논설위원
(가나다순)

한국 정보세계정치학의 첫 걸음

김상배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 정보사회와 국제평화

윤성이 역음/오름
2002. 10. 25/246쪽/10,000원

『정보사회와 국제평화』에 실린 8편의 논문은 그야말로 지난 1-2년 동안에 이루어진 한국 '정보세계정치학(GPI, the global politics of information)' 분야의 첫 걸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8편 중 4편의 논문은 2001년 10월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 연례 세미나, 『인터넷과 국제평화』에서 발표된 것이 수정·보완된 것이며, 나머지 4편은 『국제정치논총』이나 『국가전략』 등과 같은 국내 주요 정치학 저널에 게재되었던 것이 수정되어 실렸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으로 국제관계론(International Relations)은 주로 군사·외교·안보 분야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



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20세기말에 이르러서는 무역·금융·다국적 기업 등과 같은 국제정치경제(IP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 왔었다. 최근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기술·정보·지식 등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제3의 연구 영역으로서 소위 정보세계정치학이 독자적인 국제관계론의 하위분야로서 탐색되고 있다.

국제관계론의 관점에서 본 정보화 연구는 정치학 일반에서의 정보사회에 대한 관심보다도 덜 개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편집자도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치학 영역에서 “지금까지의 정보사회 정치는 주로 정부, 정당, 선거, 시민사회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국내 정치 혹은 비교정치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제정치 분야에 있어 정보혁명의 결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6쪽).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정보혁명의 결과에 대한 국내 소장 정치학자들의 지적 탐구를 담고 있다.

이 책에 게재된 8편의 논문은 국제정치의 주요 개념들인 국가, 평화, 안보, 전쟁, 국제기구, 민주주의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남북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실린 글들이 아직도 맹아 단계에 있는 학문분야인 정보세계정치학에 내달는 국내적 차원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정보혁명이 국제정치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타 사회과학의 정보화 연구보다도 신중한 결론은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국민국가, 국제기구, 민주주의 등의 개념적 이해와 관련하여 경제학이나 경영학 분야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차분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이 길정일은 그의 논문 “정보혁명과 새로운 국제관계”에서 정보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전통적 국가의 개념과 국제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정보혁명의 진행으로 인해 국제관계의 독점적 위치를 향유해온 국가권력이 위축되는 동시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의 상대적 부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국가의 소멸로 연결되 기보다는 단지 국가의 역할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러운 결론을 펼친다.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박재영의 논문, “인터넷과 정부간 기구”에서도 나타난다. 필자는 인터넷이 정부간 기구(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주성과 책임성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근본적으로 제한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부간 기구가 의사 결정과 집행에 개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비정부 기구의 참여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향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의 두 저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치적 세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윤성어의 논문, “인터넷과 민주주의 그리고 제3세계 민주화”도 인터넷이 제3세계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리고 있다. 필자는 인터넷이 가지는 민주적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낮은 인터넷 보급률과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철저한 사이버공간 통제로 인해 인터넷의 확산이 곧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와 민주정치 실현으로 연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보다는 전통적으로 탐구되어온 '전쟁과 평화'의 영역에서 정보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길정일은 그의 다른 논문, "정보사회의 국가안보"에서 정보혁명을 정보의 생산, 사용, 재생산 양식의 일대 변혁으로 규정하고 정보혁명을 통해 생성되고 있는 정보의 영역을 사이버공간, 정보공간, 사고공간 등 3가지로 분류하고 향후 정보화시대 국가안보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상현의 "정보화와 군사혁신: 세계적 추세와 대응전략"은 군사혁신에 기반을 둔 미래전은 정보전, 비대칭전, 병행전, 우주전, 정밀타격전, 로봇전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미래전에서는 정보 지식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석진은 그의 논문, "인터넷과 국제평화"에서 정보화시대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행태의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그는 국제정치학에서 널리 알려진 민주평화론이 정보통신혁명과 정보화시대의 평화의 달성이라는 두 변수를 연결하는 고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독특한 견해를 펴다. 필자에 따르면 정보통신혁명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정보화시대 일국적 국제평화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안보와 평화의 영역에서 한반도 차원의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 책에 실린 글들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특히 필자들의 주장에서 보여지는 미묘한 차이를 음미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흥미를 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안보 분야의 전략적·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 이상현의 논문 "정보화와 군사혁신: 세계적 추세와 대응전략"은 글로벌 추세로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안보 분야의 기

술혁신의 대열에 한국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한국의 군사혁신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군사혁신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 즉 군대의 경량화, 기동화, 화력의 강화 경향 그리고 정보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주홍의 논문, "정보화시대 한국의 안보정책"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 분야의 글로벌 추세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논지로서 해석된다. 필자에 따르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한국의 안보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나친 기술적 차원에 대한 강조는 피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시 말해, 안보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정보화는 연성권력과 강성권력간의 선택, 군사화와 탈군사화간의 선택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화에 대한 몰신화 또는 맹신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책에서 보여지는 한반도 정치 현실과 정보화를 연결하려는 필자들의 지적 작업은 김유향의 논문, "북한의 정보화 전략"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의 다른 저자들과는 달리 경제·산업 분야의 정보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필자가 체계적인 정보와 연구의 한계에 맞서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의식은 북한의 IT산업 전략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다. 필자의 결론에 따르면 북한은 당장의 정치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은 반면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수출 지향의 소프트웨어 중심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책은 정보혁명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학자들의 지적 첫 걸음을 이해하는 매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기된 문제 의식들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심도있는 정보세계정

치학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향후 이 분야의 연구들이 특히 유
념할 점이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의 현실 속에서 국제정
치가 보여주는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이론적·경험적으
로 동시에 포착하는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렇게 변화와 연속성을 동태성을 보이면서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있는
글로벌 정치질서의 판세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
련해야 하는 실천적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실상과 발전 방략 읽기

이재석 ·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차이나 프로젝트

후지오량 지음/윤영도 외 옮김/휴머니스트
2003. 3. 3/514쪽/20,000원

지금 중국에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탤런트 얼굴을 본 판 모습대로
성형수술을 하고싶어 할 정도로 한류(韓流)가 흐르고 있다. 반
면에 지금 한국에는 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고자 하고, 유학
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보다 중국을 택하려 할 정도로 또다른 한류
(漢流)가 흐르고 있다. 그 열기가 오죽하면 만리장성 관광지 입구에 “소
매치기 조심하시오”란 중국인이 써놓은 것이 분명한 어설픈 한글체 글
씨로 된 경고문이 영어, 일어 경고문과 함께 나란히 있을까? 그러나 이
런 열기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중국을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대륙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

- 서울대 의교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 정치학박사
- 논문: "정보화시대의 외교:개념화의 모색",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탈집중 권리양
식과 국가의 재조정" 등.